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세 지속

-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공개한 FY2009 3분기(2009년 10~12월) 실적 자료에 따르면,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 정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자동차보험은 순조롭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주요 손해보험회사들의 FY2009 3분기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등록대수 감소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.6% 감소함.
 - 반면, 소니손해보험, 미츠이온라인손해보험, AXA손해보험, 취리히손해보험 등 주요 8개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들의 1~3분기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.3% 증가하였으며, 특히 최대 온라인 자동차보험회사인 소니손해보험은 3분기에만 수입보험료가 11.4% 급증한 것으로 집계됨.

-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향후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은 온라인 자동차보험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 - 전체 손해보험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수익 개선을 위해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 작년 7월 자동차보험 요율을 약 5.7% 인상했으나 현재까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.
 - 오히려 요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을 지닌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당분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됨.
 - 업계에서는 작년 6월과 7월에 대형 손해보험회사인 도쿄해상그룹홀딩스와 손해보험재팬이 각각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회사를 자회사로 설립*해 시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처럼, 현재와 같은 보험료 상승 시기에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의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 공략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* 2009. 6. 22 키리위클리 해외금융뉴스 '온라인손보사, 자동차보험 판매 순항 중' 편 참조

(일본보험매일신문, 4/14)